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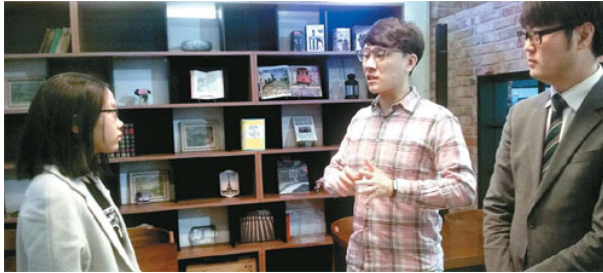
뉴스 오피니언 프리미엄 연예 스포츠 증권 부동산

경제 기업 사회 국제 부동산 증권 정치 IT·과학 문화 기획·연재 Special Edition 인기뉴스 암호화폐 오늘의 매경

[커버스토리] 증권기사 쓰는 로봇기자 '매경 M-Robo' 인터뷰

데이터 뜯 순간 로봇이 자동으로 기사 작성해 SNS 전달

입력 : 2016.04.21 09:12:14 0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일자리의 미래'란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과 인공지능(AI) 활용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5년간 기존 일자리가 약 700만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충격을 줬다. 그리고 지난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인공지능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사건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증권 기사를 쓰는 로봇기자를 개발한 매일경제 M-Robo팀 조민기, 박찬엽 연구원을 만나 로봇저널리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인터넷에서 '로봇저널리즘'을 찾아보니 로봇이나 컴퓨터가 스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틴 매경 독자들을 위해 로봇저널리즘을 보다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조민기 연구원=로봇저널리즘은 컴퓨터를 뜻하는 '로봇'과 언론을 뜻하는 '저널리즘'이 합쳐진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로봇저널리즘을 검색해 보면 로봇이 직접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로봇저널리즘은 로봇과 같은 하드웨어 장치가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는 똑똑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동으로 기사가 작성되는 소프트웨어라니 신기합니다.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찬엽 연구원=저희 M-Robo의 기사 작성 프로세스를 예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M-Robo는 기사거리를 찾고(Search), 기사를 작성(Write)하고, 그리고 기사를 배포(Distribute)하는 과정으로 기사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기사 작성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탈자를 체크합니다. 이 과정은 사람이 기사를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M-Robo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자동화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과 정확성 면에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컴퓨터는 입력한 대로 정확히 일을 처리하니까 사람과 달리 실수가 없고 더 기사를 빨리 작성하겠군요. 그래서 든 생각인데 이런 로봇저널리즘이 더 확산되면 혹시라도 기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요즘 실업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데,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박 연구원=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봇저널리즘은 기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치 있는 기사는 어떤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그 결과나 전망을 다룬 것이 많습니다. 로봇저널리즘은 기자들이 보다 가치 있는 기사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조 연구원=증권 기사나 스포츠 기사의 경우 어떤 정보나 사실의 전달을 다룬 것이 많기 때문에 로봇기자

주요뉴스

여야 원 구성 협상...제헌절 전날에도 헛바퀴

"코인 빚투를 왜 도와줘"...불공정에 분노하는 ..

"모터쇼? 모델쇼 아닌가요"...'선정적 일탈'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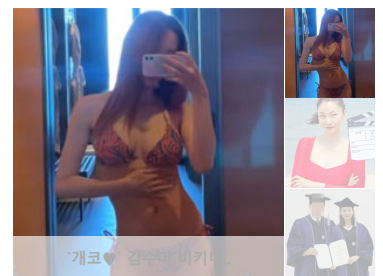
달려 초강세 여파...일부 신흥국 부도 위기감

강남 용산 아파트값 무너졌다...이젠 '서초볼패'..

인기뉴스

- 종합 연예 스포츠
1 강남 용산 아파트값 맥없이 무너졌다...이젠 '서초볼패'
2 인하대 여대생 강간치사범, 현장에 휴대폰 떨어뜨렸다...
3 '19금' 모터쇼, 선정적 일탈에 '민망쇼' 될라...조직..
4 "삼성전자서 파운드리 떼내라"...도발적인 주장 누가 했..
5 "운전자 없는 차가 인천대교에"...바다 추락 20대 女 결..

포토



를 사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봇저널리즘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일을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하게 만들어 줍니다.

로봇 저널리즘 기사작성 과정



기사거리 찾고 이탈자 체크도
정확성과 속보성이 장점
날씨·스포츠로 확대할 계획

분석 등 가치있는 기사는
로봇이 처리하기엔 한계
기자 영역 상당부분 담당

—또 이야기를 듣고 보니 컴퓨터가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점에서 얼마 전 화제가 된 '알파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조 연구원=쉽게 비유하자면 알파고는 수학을 잘하는 우리 집 첫째 형쯤 되고, 로봇저널리즘은 글쓰기를 좋아하는 동생 정도 됩니다. 서로 분야는 다르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에 로봇이라고 하면 사람 대신에 무거운 것을 들어준다거나, 위험하거나 어려운 작업을 대신해주는 장치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와 로봇저널리즘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 결과물을 낸다는 점에서 예전의 로봇과 차이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저도 '알파고'나 '기사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로봇저널리즘이나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조 연구원=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정해서 무엇을 공부하면 이러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두 분야 모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논리적인 사고를 갖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통계학과나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 쪽으로 진로를 많이 택하는 편입니다.

▷박 연구원=컴퓨터 쪽으로 공부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머 쪽으로 진로를 정하실 겁니다. 프로그래머는 자신의 적성과 잘 맞아야 진짜 즐길 수 있는 직업입니다. 또한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오히려 프로그래머가 되기 전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끝으로 틴 매경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 연구원=현재 M-Robo는 증권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스포츠, 법률 뉴스, 일기예보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틴매경 독자님들에게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멋진 M-Robo가 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조 연구원=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모두 프로그램 개발자였습니다. 이들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은 힘든 프로그램 개발 과정 속에서 부지런히 사람들의 문제를 찾고, 이를 혁신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들보다 더 멋진 프로그래머가 돼 이 세상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틴매경 독자님들 파이팅!

[김연재 틴매경기자(서일중 2년)]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봇저널리즘 #엠로보

오늘의 화뉴스

여야 원 구성 협상...제헌절 전날에도 헛바퀴 1시간 3분

"코인 빚투를 왜 도와줘"...불공정에 분노하는 청년들 1시간 19분

"모터쇼? 모델쇼 아닌가요"...'선정적 일탈' 집중 단속 1시간 52분

강남 용산 아파트값 무너졌다...이젠 '서초불패' 3시간 34분

당신이 좋아
할 만한 기사

댓글

뉴스	오피니언	스포츠	라이프	프리미엄	재테크	비즈니스	교육
경제	사설	야구	날씨	매경e신문	증권	넷케이텔레콤	오프라인교육
기업	기명칼럼	축구	골프	매경프리미엄	부동산	신설법인	어린이경제교실
사회	사외칼럼	당구	여행	레이더M	경제용어	한국데이터거래소	매경TEST
국제	매경포럼	일반	Book	레이더P			
부동산	매경데스크		우버사이트	오늘의 매경	매거진		서비스
증권	주말칼럼	연예	MK생애설계센터	들려주는 뉴스	매경ECONOMY		구독신청
정치	특별칼럼	주요뉴스	LUXURY M		매경LUXMEN		MK모바일
IT·과학	전문기자칼럼	스타인터뷰	Car	캠페인	시티라이프		신문PDF
문화	기자24시	TV·방송		세계지식포럼	골프포워먼		트위터
기획·연재		가요·음악		국민보고대회			페이스북
Special Edition		영화		세계한상대회			RSS
Pulse				정진기연논문화상			뉴스레터
MK China				매경오픈			MK멤버십
MK Japan							

매일경제

매일경제 회사소개 회사연혁 광고안내 구독신청 인재채용
매경닷컴 회사소개 광고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원약관 독자의견 서비스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이선형, 고성준)

매경 Family site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 ☎ 02) 2000-2114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043 등록일자 : 2009.11.30 발행일 : 2009.11.30 발행인/편집인 : 김정욱 사이트맵

Copyright (c) 매경닷컴. All rights reserved. RSS